

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세션 1, Meadors 모델 개요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 신학에 대한 우리의 강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서론, 목차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전체 시리즈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GM 1에서 강의 1, 레슨 1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합니다. GM 1, 여러분은 반드시 노트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로 PowerPoint 슬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기술 면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PDF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PowerPoint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동안 그것들을 여러분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학습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코멘트를 노트에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 수업은 이전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모델에 대한 개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여러 장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개요에서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후속 수업으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수업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 모델을 이해하도록 돋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삶의 범주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기본적인 철학적 범주입니다.

우리는 인식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용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알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철학 입문에서 여러분은 존재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인식론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어떻게 아는가? 내 지식의 타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치론은 그 용어이고, 그것이 당신이 아는 결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좋아요, 그럼 신의 뜻을 아는 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과 성경을 증거 텍스트가 아닌 맥락에서 읽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위자보드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을 펴서 구절을 찾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거나 그들이 다루고 있는 상황에 적용되는 구절을 찾을 때까지 계속 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문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일부를 문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락으로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단락과 이 책들의 챕터도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이 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미에서 수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서 12:1과 2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관과 가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제 패러다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과 가치 모델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관적 도전, 양심, 정신, 기도, 출처 및 이러한 문제 중 일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궁금해할 것이지만, 마지막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체리픽을 골라서 그 중 일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질문을 분별하는 시스템.

저는 여러분에게 결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적어도 한 가지 아이디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대부분의 결정은 성경이 직접 다루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3번 또는 4번 강의이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 가져오는 창조적인 구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현재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분별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연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이 강의를 앉아서 듣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라십니까? 글쎄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숙고에 있어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의식적 숙고.

당신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에 따라 삶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저 실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신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적인 숙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경 해석과 큰 관련이 있고,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탐구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리려는 결정도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낙태, 트랜스젠더, 자신과 자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신 자신의 과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은 당신의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를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 두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줘, 5가지를 말해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5가지를 해줘. 글쎄, 너한테 소식이 있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보다 정신적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와 아는 것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삶을 살 수 없고, 한 기둥이나 다른 기둥에 부딪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참여해야 하고, 경전과 함께 삶을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카드에 적고 그 진술을 암기하여 공부와 삶을 통해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적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식론은 아는 것의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뭘 알까? 글쎄,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까? 미친 질문처럼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까? 우선, 인식론은 지식의 근원, 본질, 타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나 고전적으로 지식의 근원은 우리의 감각, 감정, 청각, 시각, 이성, 즉 무언가와 합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권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권위의 범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게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 그것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권위는 지식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측면인데, 왜냐하면 감각과 이성이 1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관도 그렇습니다.

직감은 여성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의 직감이죠. 직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가끔 경험하는 데자류가 아닙니다.

오, 저는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철학에서 직관은 동양의 신비주의와 비슷해요.

성경적 관념에서 직관은 계시와 동일할 것입니다. 신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직관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객관적인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음 것으로 이끕니다.

인식론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누군가가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소리가 날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지식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문제를 탐구하는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는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없더라도 여전히 소리가 납니다. 녹음기가 있고 인간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반면 주관적인 측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식을 논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타당성, 대응성, 일관성이 있습니다.

서신은, 내가 주석 지붕이 있는 방에 앉아 있다면, 나는 비가 오는 것을 듣는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젖을 필요가 없다. 지붕에 비가 오는 소리를 경험과 일치시켜서 보지 않고도 비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물을 알기 위해 사물을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삶의 합리적인 측면과 사물이 추론되는 방식을 다루는 일관성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매우 빠른 개요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대해 쓰여진 책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성경이 어떻게 인식론적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출처에 대해서요. 글쎄요, 우리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의 관점과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성경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추론을 사용합니다. 직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처와 관련하여 우리가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측면에서 우리의 내부 처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인식론적 공백. 출처, 자연, 그리고 타당성.

지식의 본질은 객관적이며, 그 타당성은 일관성과 대응 문제 및 지식 이론과 관련하여 모두 해결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식론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식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세상이 실제로 지식의 출처, 본질, 타당성 모델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는 종교적 지향이 무엇이든, 철학적 지향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룹니다. 무신론자도 그것을 다룹니다. 기독교인도 그것을 다룹니다.

무슬림도 그걸 다루고, 힌두교도도 그걸 다루고, 모두가 그걸 다룹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에서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을 아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은 영원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와서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사실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에게 불순종했고,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타내러티브입니다.

그게 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을 보려고 볼 때, 우리는 훠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왜곡을 훠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락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것을 왜곡했습니다.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성경이 말한 것과 모세가 말한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믿음 범주 내의 전통이 그에게 말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신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신론자는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먹을 공중에 흔들며,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글쎄요, 그건 어리석은 소리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왜곡을 뚫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타락의 효과라고 부르는 것 있습니다. 즉, 타락은 땅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 대로, 녹두 대신 엉겅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원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인생은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6-10을 펼쳐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 지금은 개요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지 개요만 설명할 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10절이 1-4장에 포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2:6-10은 바울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왜 옳은 메시지이고, 더 뛰어난 메시지인지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압박하는 사람들에게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통하시고,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소통하는 계시적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계시는 성경에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계시는 성경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지식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왜곡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그 소통, 즉

성경을 주심으로써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독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영감받은 해석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조차 혼란에 직면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의 크고 큰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우리에게 적절한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의 일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탐구, 우리의 결정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려는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양성을 주십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얻었을 때, 마치 공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대한 신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2:6-10을 살펴볼 것입니다. 훨씬 더 나중에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저 개요를 얻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를 가진 성경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의 상황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노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타락의 결과를 가진 성경 이야기는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타락은 우리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냅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은 기독교인이 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신자가 되고, 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세상과 우리 자신의 타락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별력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제 체계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뭐지?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한편으로는, 신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성경은 신의 말씀이다.

그것은 신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발에 등불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은유. 이사야는 말씀과 증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요한도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는 성경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계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는 시간을 거쳐 더 많은 기록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닫혔고,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반면에 우리는 그 기록에서 벗어나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벽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긴장의 결과로 우리는 기독교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매우 도전적인 여정이며,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다양성이 있는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신자로서의 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 맥락에서 해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adelphoi*입니다.

그것은 남편, 아내, 자녀를 포함하는 그리스어 용어이며 전체 그룹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예배 또는 합리적 봉사입니다.

여기에는 번역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은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게 희생이 아니야. 희생은 죽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이야.

우리는 바울이 나중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세속성이란 무엇인가? 세속성은 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세속성은 신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을 따르는 측면에서 승인된 과정 밖에 있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속성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그 세계관과 가치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하십시오. 변화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시험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당신은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학습과 교육의 한 측면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안경이 약간 비뚤어져 있어서 계속 조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변화해야 할 과정이에요.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 그 복합체 전체를 사용하여 삶의 문제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별은 그것을 알아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분별은 성경에 묶여 있고, 성경 밖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외의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마치 어떤 작가가 신의 뜻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신의 뜻을 찾는다는 글이 있었고, 부제는 이교도적 관념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신의 뜻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행하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제발, 신이시여. 순종으로 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세요. 순종은 행동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경전을 처리하면서 보게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은 우리가 강조하고 여러 강의에서 보여드릴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풀어내면서 말입니다. 이제 노트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 변형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하여 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모두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게 당신의 데이터 측면입니다.

오른쪽에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렸는지 주목하세요. 마음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믿는 대로 심장으로 그려집니다.

성경 속의 심장은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Splunk 손잡이, 창자, 동정심의 창자, 그것이 성경 속의 감정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심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심장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장에서 삶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드를 통해 실행하고 곱을 구합니다. 좋아요, sin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면 어떨까요, sin. 이 용어는 정의해야 합니다.

좋아요, 무신론자는 죄를 그리드에 긋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어리석음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기독교인을 데려와서 죄를 그리드에 긋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반하는 범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의를 얻습니다. 여기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드를 통해 데이터를 실행하여 생각의 결과물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게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직적으로 변형합니다. 그게 생각의 블록을 만듭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실행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변형된 마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마인드, 의미. 좋아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게 변형된 마인드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글쎄, 세계관과 가치관 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관과 가치관은 같은 것입니다. 데이터는 세계관과 가치관 복합체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변형된 마음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이 길을 따라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의 번호판이나 범퍼 스티커가 보입니다.

범퍼 스티커여야 해. 큰 스티커가 있으니까.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긴다. 그게 세계관이야.

그 사람은 방금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습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긴다. 그게 세계관이다. 글쎄, 그 생각을 변형된 마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이긴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온다. 당신은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온다.

인생은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물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풍부했습니다. 다윗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에게서 한 번 들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걸 경험했지요? 아마 나도 그렇고 당신도 다 그런 죄를 지었을 겁니다.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

사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요. 당신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성숙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신은 우리의 실수 위에 그의 일을 쌓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우기 위해 실수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변화된 마음. 그게 뭐예요? 변화된 마음은 교육의 과정이에요.

이제, 알아차리세요. 교육. 그것은 당신의 헌신의 과정이 아닙니다.

아침에 15~30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나가서 한 시간 후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를 성경적 가르침에 맞게 만드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것이 변형된 마음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일상의 삶의 투쟁에 의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선구적인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위한 제 목표에 대한
 진술로 돌아가는 선구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자의식적인 숙고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그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형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마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 약간 반복되는 내용을 얻습니다. 자의식적인 숙고를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삶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그 작은 차트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세계가 여기에서 겪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신의 세계에서는 사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공간에 매달아 놓을 수 있고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과 신자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요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볼 때,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돋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 다음 당신의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하고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고 그들이 당신의 주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돋는 훌륭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특정 강의는 개요를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계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세계관과 가치관.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정신적 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차트를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불잡아야 합니다. 더욱이,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에서 파생된 개인적 신념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의 산물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높은 날개를 달고 죽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에서 비롯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과 접촉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가운데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이야기해 온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것은 교육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의료, 법적 기관, 환경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증거 본문이 없습니다.

정치, 종교 기관, 가족, 예술. 하지만 모든 삶의 범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공교육을 사용할까요? 사교육을 사용할까요? 홈스쿨링을 사용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려하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서는 공교육의 절반은 기독교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공공장소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스며든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대도시는 아이가 있기에 좋은 곳이 아니다. 특히, 많은 대도시가 그렇듯이, 신에 대한 태도가 지배하는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리드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 과정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피임, 임신 중절, 유언장, 재정, 자녀 교육에 대한 결정. 일종의 반복이지만, 여기서는 모델에 넣었습니다.

세계관을 살펴보세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의 산물입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개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제 시간에 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모든 범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돋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관과 가치관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원하고, 기쁘게 하고, 기뻐하고, 선택하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 언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신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드러난 것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 숨겨진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숨겨진 것을 알아내는 것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는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부터 출애굽기의 아주 사소한 법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법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소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물 수 있는 개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매우 간략하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약과 신약의 서사입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편과 지혜가 나오는 많은 곳을 줍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 권고도 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얻어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수행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

좋아요. 하늘에서 온 목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일을 시작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 변화된 마음을 내 가치관에서 삶의 질문에 적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가야 하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세부 사항을 많이 다룰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더 큰 방식으로 읽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의 과제는, 친구 여러분, 증거 본문, 직접적인 증거 본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강의에서 직접적인 의미와 창의적인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증거 본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타락이 있지만, 타락부터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쫓아가시는 듯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 정보를 통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정보를 빙빙 돌거나, 그 정보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의 깊은 독서는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읽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증거 본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삶의 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르침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체 강의가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저는 이미 암시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쉬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의도,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암시적 수준과 창조적 구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닥에서 꼭대기로 가면서, 당신은, 나는 그것을 단순하다고 부르겠지만, 반드시 단순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가르침에서 모든 천년왕국주의, 전천년왕국주의, 그리고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 영역에 있는 것들과 같은 더 복잡한 구성으로 갑니다. 그것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창조적인 구성물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증거 본문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이 생각해야 할 큰 생각입니다. 세계관과 가치 개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개발하기 위한 확장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렇죠? 반복은 학습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세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관찰하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술, 가치의 예금, 우리가 진실을 밝힐 때 생기는 가치의 예금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할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는 롯의 이야기인데, 그가 성경이 쓰여지고 모세 시대처럼 체계화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가치관을 어긴 모델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집중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선지자,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고, 신약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발전 과정에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가치를 가지려면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발전을 보고, 이야기 속의 가치관을 보고, 시편 기자가 낙담을 어떻게 다루는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발전하는 가치관입니다. 지혜는 거기서 나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제 똑똑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편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말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 변화된 마음을 통해 말이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차트의 맨 아래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신의 뜻을 적용합니까? 글쎄요, 신의 뜻은 경건한 분별력을 통해 적용 됩니다 . 경건한 분별력을 통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분별력에서 발견 됩니다 . 이것은 세계관과 가치 문제가 있는 스틱 모델의 변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의도에서 신학적 분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함은 증거 본문이 없을 때에도 성경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주관적인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시간보다 약 20분 더 길어질 것입니다. 저는 보통 강의가 1시간 이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글은 제가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반복해서 읽고 큰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각조각으로 나눠서 해줄 브레이크아웃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관적인 도전은 양심의 도전, 영의 역할의 도전, 섭리, 기도입니다.

그것들은 큰 것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범주 각각과 관련된 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관과 가치 모델에서 그 모든 것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과 영이 그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말할게요.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양심이 당신의 가이드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참인가 거짓인가? 양심은 당신 안에 있는 독립적인 실체입니다. 그것은 참인가 거짓인가? 양심이 어떻게 인간 구성의 일부인가? 셋째, 참인가 거짓인가? 양심은 목소리를 위한 열린 청중실입니다.

아마도 신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마도 악마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별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열린 양심, 열린 청중실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양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양심의 특징.

그것은 자기 비판을 위한 신이 주신 능력입니다. 신은 우리를 양심이라고 부르는 이 메커니즘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핵심 용어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대한 증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의 삶을 방해하시고 그를 바꾸어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방식의 오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계관과 가치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자기 비판에 대한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약간 충격시킬 수 있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못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프리마돈나가 많아요. 이기심이 많아요. 권위적 통제가 많아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인도하기보다는 통치하기. 인도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관이 당신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계관이 영망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에게 더 잘 다가가서 당신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것은 모니터입니다.

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증인은 자신 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은 세계관과 가치를 보고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세계관과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질문을 던질 또 다른 존재입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성령의 역할은 성경적 정보를 추가 내용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조명은 종종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사용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말해줄게. 프로비던스도 마찬가지야.

GM 13에서 섭리에 대한 전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는 여기서 도전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건 나중에 GM 14에 나와요. 좋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분별하려면 당신의 세계관 틀 안에서 성경적 지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 그게 데이터, 사고방식, 의미의 간단한 작은 다이어그램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일이잖아요. 제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신을 믿지 않는 시인조차도 매우 진실된 진술을 했다고 말했어요.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삶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고 성경과 성경의 관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좋아요, 그 시스템은 그 차트에서 단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슬라이드에서 이것을 큰 사본으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전체 크기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의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특정 슬라이드 세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알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갔다는 건 알지만, 노트는 가지고 있어요. 강의를 몇 번 들어보세요. 한 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다른 세그먼트에 그것을 조각조각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그림, 변형된 마음의 큰 요점 ,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가치 체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전체 패러다임에서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계속하세요. 하지만 바로 여기,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의 메모에 제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또한, 제 웹사이트도 언급했는데, 그걸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그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끔 소설 미디어, 전화, 심지어 컴퓨터조차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던지거나, 어딘가에 던져서는 안 될 곳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 을 한 후에 제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면, 다시 시도하세요. 가끔은 제가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만의 기도 시간을 갖고, 다음 세그먼트의 GM2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